

# 國立公園을 올바로 알고 마음껏 利用하자

李 亨 雨

〈국립공단관리공단 홍보실장〉

## 지난해만 4천만명 探訪

지난해 11월부터 국립공원내에서의 취사·야영금지조치와 일부 등산로에 대한 자연휴식년제 실시 이후 대다수 국민들, 심지어는 산을 아끼고 자주 찾는 산악인들조차도 국립공원 탐방을 주저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수많은 문의전화도 쇄도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에 이러한 제도를 도입, 실시하게 된 배경과 취지를 감안하여 이러한 제도가 아예 국립공원을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데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히고 예전처럼 국립공원을 많이 탐방하여 주시길 올바르게 이용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지난해는 환경오염문제, 즉 수질오염, 대기오염, 토양오염, 그리고 산업폐기물과 가정 및 산쓰레기 문제 등이 언론에 연일 대서특필되어 온 나라를 들끓게 하고 국가와 국민 모두가 산업화 과정에서 수반되는 이러한 환경오염문제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충분했다.

정부도 그 가지적 조치로서 1990년을 환경원년으로 설정하고 환경청을 치료 승진시켰으며, 여러 민간단체들도 환경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시대적인 분위기에 맞춰 국립공원관리공단도 국립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일환으로 국립공원내에서의 취사·야영금지, 자연휴식제 등의 제도를 도입, 실시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은 다도해해상, 한려해상, 태안해안 등 3개 해상·해안공원과 사적공원인 경주,

그리고 설악산·지리산을 비롯한 16개 산악공원 등 총 20개가 지정되어 있다. 작년 한해동안 이들 국립공원을 찾은 탐방객은 4천만명에 달하였고, 공원에서 발생된 쓰레기는 2만톤(4톤트럭 5천대분)으로 이를 치우는데만도 자그만치 15억원이라는 비용이 소요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시행착오를 언제까지나 되풀이 할 수는 없으며, 관리당국과 국민 모두가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모두의 휴식처인 국립공원을 아끼는데 앞장서야 하겠다. 버려진 쓰레기가 소멸되기까지는 병이 1천년, 알루미늄캔 5백년, 철캔 50년, 나일론 30-40년, 플라스틱 20-30년, 비닐 10-20년, 모직 1-5년, 담배필터 1-5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이의 실천은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올바른 利用에 最善

1967년 지리산이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이래 오늘날까지 무질서한 공원이용에 의한 공원에서의 쓰레기 문제, 취사문제, 무단야영, 계곡물 오염, 음주·고성방가 등 자연환경에 큰 부담을 주는 제반요인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국립공원의 가치와 기능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기인된다 하겠다.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은 미대륙의 서부 개척기에 한 탐험대에 의해 발견된 미국의 옐로우 스톤 국립공원으로, 1872년 “옐로우 스톤의 장관을 국가소유

로 하고 국가가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소중한 자연 자원을 영원히 향유하자”는 제안이 미국 의회에서 받아들여져서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으며, 이러한 국립공원의 이념을 1930년대에 일본이 먼저 받아들였고, 우리나라는 1967년에 도입하게 되었다.

결국 국립공원의 가치와 기능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장 수려한 자연풍경지로서 국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 국립공원이 제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공원자원에 부담을 주지 않고 올바르게 이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일전의, 우리 국민의 여가선용 및 취미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등산을 즐기는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도 따지고 보면 국민이 국립공원을 찾아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함으로써 생산성 향상도 기할 수 있고, 도시에서의 범죄발생도 줄일 수 있는 삶의 궁극적인 태도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자연속에서 모든 사람은 선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처음 본 사람끼리도 미소지으며 인사를 나누고 손을 잡아 이끌어주는 모습을 볼때 공원을 관리하는 당사자로서는 커다란 긍지와 보람을 느끼게 된다.

일본에서도 70년대에 산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였지만 지속적인 계도로 쓰레기 안버리기와 되가져오기가 생활화되어 먹고, 마시고, 노는 행태가 개선, 자연을 감상하는 이용행태로 바뀌었으며, 산에서의 쓰레기통도 사라졌다. 우리도 88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뤘던 문화민족답게 공원의 계곡이 커다란 음식점을 방불케 하는 모습을 재현하지 않아야 하겠다.

### 山火警防기간에도 산행만끽할 수 있다.

전국의 모든 국립공원은 예전과 다름없이 탐방할 수 있다. 20개 국립공원중 북한산, 한라산, 변산반도에서는 전면 취사·야영이 금지되어 있으나 그 외의 모든 공원은 취사·야영할 수 있는 곳이 지정되

어 있다. 취사·야영이 금지된 3개의 공원과 등산을 하며 자연을 감상하는데 있어서는 예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으며, 공원별로 취사·야영이 가능한 곳도 대부분 기존의 야영장과 대피소 부근임으로 국립공원을 많이 이용해 주시되 도시락 등 간이식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분별한 취사·야영금지 조치이후 산을 찾는 사람들의 예전과 같은 무질서한 모습은 거의 볼 수 없게 되어 탐방객 여러분께 감사하고, 우리의 국립공원도 보전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으나 다가오는 행락철을 맞아 예년의 모습이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

또한 해마다 춘계(3월1일-5월31일) 및 추계(11월1일-12월15일) 산화경방기간 동안에는 공원내 자연자원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립공원의 일부 등산로를 통제하고 있으니 공원을 즐겨찾는 탐방객 여러분의 보다 세심한 주의와 이해, 협조를 당부드린다.

경주와 한라산을 제외한 국립공원의 등산로는 모두 214개. 이 기간동안 82개 등산로만 개방되고 132개 등산로는 폐쇄된다. 개방된 82개 등산로는 탐방객이 많이 다니는 주등산로로서 지리산과 설악산을 제외하고 통제기간중에도 정상까지 등산이 가능하고 대부분 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전의 산행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설악산과 지리산은 산화경방기간에는 정상인 대청봉과 천왕봉에 이르는 등산로가 통제되기 때문에 종주는 불가능하나 중부능선까지는 등산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기간중에도 현지 기상여건에 따라, 즉 눈·비가 와서 산불위험이 없을 경우에는 공원관리사무소장의 허가를 받아 통제된 구간도 등산이 가능하다. 또한, 산화경방기간 중에는 허용된 취사·야영장이 없는 곳에 등산을 할 때에는 취사·야영도구의 휴대입산을 통제함을 깊이 인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립공원을 많이 탐방해 주시고 올바르게 이용하여 주시길 바란다.